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이편의 한국 근대 유교 연구들은 대략 19세기 중후반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에 대한 성과들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근대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근대에 대한 정의는 연구 분야,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의 근대만 하더라 도 그 시작을 실학으로 볼 것인지, 개항으로 잡을 것인지, 나아가 1945년 해방으로 평가할 것인데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 이면에는 근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근대기 서세동점의 여진까지 점차 사라진 1970년 이후부터 근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정립되어 갔다. 그 중 1980년대 김일곤이 정리한 유교자본주의는 근대관에 있어서 탈서구화 양상을 가속화시켰다.[13] 하지만 당시 정치, 사회적 한계로 인해 당시 유교논의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근대 유교 연구도 중국의 근대 관련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것도 한국의 근대 당시 유교지식인들의 사고와 대략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활동한 유교 철학 및 사상가들과 당시의 유행했던 유교 관련 사조에 대한 문·사·철과 이와 통섭적으로 접근한 인접 학문의 성과들을 토대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서비스(RISS)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000년 이후 근대 한국 유교분야의 연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통적 유교 또는 이에 기반한 유교지식인들이 서구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하는 논의이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 또는 근대성 연구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지속된 주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서구 수용과 유교 변용, 유교지식인들의 근

13) 이처럼 한국에서 유교자본주의나 유교근대화론 등의 등장에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연결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2000년대 초 이들 논의들의 쇄락이 IMF 경제위기에서 온 것이고, 다시 현재 대안 근대성으로 복원되는 양상도 모두 한국의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역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대 인식, 독립운동과 유교계와의 관계 등이 주된 주제이며, 최근에는 전통 유교 특히 실학과 근대기 유교와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는 별도로 구한말에도 지속된 전통 유교의 양상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위 권인호, 이영자, 김근호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이외에도 최근 호락논쟁湖落論爭, 심설논쟁心說論爭 등의 조선 후기 유교 철학이나, 간재 전우, 연재 송병선 등 전통 유학자들 연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한국 근대 유교에 대한 연구가 전통과 근대 또는 전근대와 근대라는 기존 한정된 주제에서 탈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이들 연구도 결국에는 대안 근대성과도 일정정도 관련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4년 근대 한국 유교 연구들은 2013년 연구나 동시기 근대 중국 연구보다 양과 질에서 뛰어났다. 내용면에서 이들 연구들은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철학, 역사 인식에 비교적 치중했지만, 동시에 전통 성리학 담론의 연장선인 심설논쟁에서 근대 시기 유림연구 및 서구 수용 논의까지도 포함한 비교적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한국 유교연구에서 근대 한국 또는 근대 한국 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4년 한국사분야 중견연구사업에 '한국 근대 유교지식인에 관한 연구'를 지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이어져 앞으로도 관련 연구는 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14]

2. 인물별 분석

2014년 이 영역에서 가장 의미있는 인물은 박은식이다. 동 기간 연구 중 박은식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이나 되며, 본문 중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은 연구는 거의 없다.[15]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박정심	근대 格物致知學science에 대한 유학적 성찰	한국철학 논집43	한국철학사 연구회
철학	김현우[16]	『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	민족문화43	한국고전번역원
철학	김현우	박은식의 사상 전환 속에 나타난 양명학의 성립배경과 전개 양상	국학연구24	국학진흥원
사학	노관범	해제 : 박은식의	개념과소통	한림대학교

14) 2014년 한국 근대유교지식인 연구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연재(송병선)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연구」(김상기)
「한국 근대 유교지식인 3인(박은식, 김교헌, 강우)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김동환)
「近現代 儒學者 卷宇 洪贊裕의 儒者 意識과 文學活動 - <卷宇集>, <晴陰錄>을 중심으로-」(정후수)
「구한말 황성신문 사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근대 인식 연구」(김현우)

15) 한편, 리스트의 연구 분야는 ①학회지의 성격, ②저자의 전공, ③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논자가 선정하였다.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13	한림과학원
사학	김종복	백암 박은식의 발해사 인식과 그 서술 전거	한국사학보 54	고려사학회
종교	김현우	박은식의 국교론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징	대순사상 논총22	대진대학교대순사상학술원

또 철학, 사학 및 문학 등 한국학 주요 전 분야에서 비교적 폭 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은식 연구에도 일정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과거 독립운동가 또는 역사학자로서 주로 연구되어왔다. 텍스트도 당연히 이와 관련한『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박정심의 박사 논문이후에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그의 유교철학에 관심이 높아졌다.[17] 현재는 박은식이 퇴율 및 다산의 철학을 공유한 전통 성리학자 출신이고, 당시 중국와 일본의 양명학을 수용했으며, 나아가 그의 철학을 독립운동과 연결시켜 재해석하려는 시도 있다. 텍스트 역시 위 두 전적에서 탈피하여『학규신론』,『몽배금태조』또는『왕양명실기』등의 전적이나,『대한자강회월보』,『서우』,『서북학회월보』및『황성신문』등의 기고문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동시에 그를 중국의 양계초梁啓楚, 강유위康有爲 및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다카세 다케지로高瀨武次郞와 비교하여 근대시기 한중일 유교 또는 유교지식인을 통섭적으로 규명하려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박은식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은 장지연과 신채호이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강영심	1900년대 동아시아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유통과 수용	이화사학 연구49	이화사학연구소
사학	김수자	신채호의「이태리건국삼걸전」번역 목적과 '영웅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80	독립기념관
문학	황재문	1908년~1909년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그 의의	우리어문 연구49	우리어문학회

비록 2014년에는 황재문의 연구 한 편만 있지만, 박은식과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에서 그의 이름이 그치지 않는 연구 대상이다. 한편 신채호는 박은식, 장지연과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장지연의 전통 유교의 입장에서 박은식이 전통과 근대의 소통, 또는 독립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왔다면, 신채호는 전통 유교보다는 주로 근대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도 이러한 연구 태도가 지속되어 양계초「이태리건국삼걸전」번역을 통해 그의 근대적 사고를 추론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 최근 연구경향 중에는 일제강점기 및 해방이후의 유교지식인들에 대한 연구도

16) 본문에서「『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는 김현우(2014a),「박은식의 사상 전환 속에 나타난 양명학의 성립배경과 전개 양상」은 김현우(2014b)로 표기했다.

17) 박정심,『白巖 朴殷植의 哲學思想에 관한 硏究 : 社會進化論의 受容과 陽明學的 對應을 中心으로』, 성대 박사논문, 2001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이난수	인문정신으로서의 '얼'과 한국인의 신명문제	양명학37	양명학회
철학	이인화	1910년이후 한말사회 진화론의 변용과 극복 양상	동서철학 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사학	유승원	한우근의 조선 유교 정치론·관료제론	진단학보 120	진단학회
종교	이명호	근대 전환기 종교 영역의 변화와 사회인식	사회사상과 문화29	동양사상사학회
종교	한재훈	'유교계' 종교 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갱정유도의 '유도시대'	한국종교37	원광대학교종교 문제연구소

이난수, 이인화, 한재훈, 이명호, 유승원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연구 태도는 한국 유교를 전통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제강점기 이후로까지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실제로 조선왕조 약 600년, 고구려 태학부터는 1,640여년, 더 나아가 기자의 동래東來부터 이어 온 한국 유교가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진 짧은 기간에 모두 사라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한국 유교 연구에 한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들이 친일적 유교지식인들에 대한 사상적 정당성을 주지 않도록 학자들의 많은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매체를 이용한 유교 관련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이미 매체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문학 및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성과의 연장선에서 매체를 통해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김현우의 '『황성신문』사설의 데이터베이스화'이다. 『황성신문』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는 물론 문명주의자였던 남궁억, 나수연 등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집단적으로 참여한 매체로써 유교적 기반하에 현실을 인식한 이들의 집단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연구는 2016년 완료되는데, 현재 자료 선택의 한계를 겪고 있는 근대기 유교 연구에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분석

경학은 유교철학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서구의 해석학(解釋學, Hermeneutics)과 견줄 수 있다. 근대 사회로 이행기였던 조선 후기에는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경학이 다수 출현하였다. 여기에는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맹자요의』 등이 있다.

박은식은 1904년 출간한 『학규신론』에는 논어와 서경을 중심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경문을 인용, 해석하고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김현우	『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	민족문화43	한국고전번역원

김현우는 위 연구를 통해 박은식의 경전 인용과 해석을 토대로 그의 경학관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박은식의 경학관은 성기호설을 주창한 정약용의 경학관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만, 박은식의 정약용 수용을 보다 확실히 추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18)]

경학뿐 만 아니라, 조선 후기 철학의 연장선에서 이 시기를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김병목	老洲 吳熙常의 性理說에서 主宰의 의미	儒敎思想文化硏究56	한국유교학회
철학	이영자	개항기 전후 호서유학자의 학맥별 갈등양상과 그 성리학적근거	유학연구3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철학	김근호	19세기 심론의 주재 문제로 본 율곡학의 양상	율곡사상 연구28	율곡학회

김병묵, 김근호 및 이영자의 연구는 호락논쟁, 심설논쟁 등 조선 후기 전통 철학을 이 시기까지 연장시켜 고찰하고 있다. 당시에 이러한 논쟁은 중앙보다는 지방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지역학 추세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양명학, 서구 수용, 사회진화론 등 근대기 유교 철학 담론을 대상으로 박정심, 이난수, 이숙인, 조현범, 정욱재, 이인화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18) 이 연구는 크게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첫째는 이전과는 달리 근대라는 연구 영역에서 경학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다. 사실 근대시기에 대한 유교 연구는 전통적 의미의 경학 또는 철학보다는 근대, 시대변화 등과 관련한 사상과 문학에 치중되어 왔다. 때문에 근대기에도 이 같은 연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둘째는 박은식과 정약용의 학문적 연결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이다. 연보에 의하면 박은식은 21세인 1880년경에 '경기도 광주에서 정약용의 후학들과 교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록 이외에 기존 전적을 통해서는 그와 정약용의 관계를 유추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성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에게 미친 정약용의 학문을 가늠할 수 있다. 장지연은 정약용의 경세학을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책의 「서」序를 쓴 이기李沂(1848~1909, 호는 해학海鶴)도 정약용의 학문을 이어받았다. 한편, 이 책의 또 다른 「서」를 쓴 김택영金澤榮(1850~1927)은 박지원의 학문과 관련이 깊다. 때문에 이 연구는 박은식의 근대 학문에 있어서 실학의 역할을 물론 나아가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근대적 지식 체계도 엿볼 수 있는 연구라 하겠다. 다만, 『학규신론』의 서序를 쓴 해강海鶴 이기李沂를 이기백李沂伯이라고 소개한 것은 오류이다. 원문에는 서序의 저자를 이기백증李沂伯曾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기李沂는 성명姓名이고 백증伯曾은 자字이다. 또한 발跋을 쓴 이유정李裕楨도 이유정李裕貞으로 잘못 적고 있다. 이러한 실수는 이 연구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박정심	근대 格物致知學science에 대한 유학적 성찰	한국철학 논집43	한국철학사 연구회
철학	이난수	인문정신으로서의 '얼'과 한국인의 신명문제	양명학37	양명학회
철학	이숙인	근대초기 '여권女權'의 유입과 유교의 재구성	국학연구24	국학진흥원
철학	이인화	1910년이후 한말사회 진화론의 변용과 극복 양상	동서철학 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철학	조현범	조선 후기 근대적 양심 개념의 도입 경위와 천주교의 역할	코기토75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사학	정욱재	한말 유림의 공사(公私) 인식	역사와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이 시기에는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학 분야 학자들인 노관범, 유불란, 강영심, 김수자 등의 의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종교(이명호, 한재훈, 김현우), 문학(황재문, 김수연)과 관련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분야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사학	강영심	1900년대 동아시아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유통과 수용	이화사학 연구49	이화사학연구소
사학	김수자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번역 목적과 '영웅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80	독립기념관
사학	노관범	해제 :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	개념과소통 13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사학	유불란	근대 한국의 서양사상 유입과 민 인식의 변화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13-2	한국동양정치 사상사학회
종교	김현우	박은식의 국교론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징	대순사상 논총22	대진대학교대순 사상학술원
종교	이명호	근대 전환기 종교 영역의 변화와 사회인식	사회사상과 문화29	동양사상사학회
종교	한재훈	'유교계' 종교 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갱정유도의 '유도시대'	한국종교37	원광대학교종교 문제연구소
문학	김수연	역사의 문학적 전유를 통한 문명전환기 미래사 구축의장 - 몽배금태조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문학	황재문	1908년~1909년 장지연의 저술 활동과 그 의의	우리어문 연구49	우리어문학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14년 연구들은 대체로 기존 연구 영역과 주제들에 속하면서도 몇 편들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 유교에서는 박은식의 유교 철학과 사상이 재해석되고 있다. 노관범은「해제 :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에서 '이 책은 국망 직후 박은식이 망명지에서 투철한 민족의식으로 한인 자제의 사상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책자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적지 않았다.'고 그 저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책의 정체를 사상서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은 국가 독립에 있다고 보았다.

> 이 책『몽배금태조』는 형식상 꿈 이야기이지만 내용상 사상서라고 보아야 할 작품이다. 단군이 강림한 음력 10월 3일 한국의 망국민 무치생, 곧 박은식이 구름을 타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 백두산 산신을 모시는 개천홍성 제전開天弘聖帝殿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금 태조와 만나 나눈 가상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 이 책이다. 어째서 금 태조인가? 박은식은 국망 이전부터 이미 한국과 만주를 아우르는 새로운 역사로서 민족의 역사를 구상하였고 서간도에 망명한 후 집필한『대동고대사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만한통칭滿韓統稱'으로서 '대동'이라는 역사 주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만한을 아우르는 대동의 역사를 새롭게 구성할 때 금나라는 기왕에 망각 속에 있던 자민족의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 부상한다. 국가를 잃고 파편적인 유민遺民 공동체를 살아가는 망명지의 한인들에게 금나라는 국가 이전의 부족 공동체에서 출발하여 자강에 힘써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을 일으킨 역사적 모델로 다가온다. 여기에서 망국민으로서 무치생이 하필 금 태조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작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19]

박은식은 이 책에서 '단기적으로 한일강제합병에 봉사한 친일지식인들이 행복을 누리는 듯 보이나 결국에는 독립을 갈망하며 묵묵히 투쟁한 지사들에게 그 행복이 돌아간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극복의 강한 주지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노관범도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지점에서『몽배금태조』의 사상적 키워드로 복선화음의 실천적 함의를 짐작할 수 있다. 무치생이 던지는 복선화음의 갈망이 국망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는 화복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면, 금 태조가 되던지는 복선화음의 통찰은 국망의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니 국망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도덕적 주체의 수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복선화음의 논의가 도덕적 주체의 수립으로 귀결한 사실은 중요하다. 국망 이전에도 신도덕을 수립하여 자강운동의 도덕적 재무장을 도모하였던 이 책의 지은이 박은식이

19) 노관범(2014). 182-183면 참조.

병합조약으로 국가를 완전히 상실한 국망 이후에도 한국 독립을 위한 방략으로 도덕적 주체의 수립을 급선무로 여겼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

노관범은 박은식의 제일 과제를 '주체적 도덕관의 확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양명학의 주지주의 또는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은식은 이를 통해 금 태조와 같은 민족적 영웅을 추구했다.

몽배금태조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인 김수연의 「역사의 문학적 전유를 통한 문명전환기 미래사 구축의장-몽배금태조」에서는 박은식의 미래관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몽배금태조』에서 박은식이 당시를 '천지의 진화로 인하여 신구(新舊)가 바뀌는 시대'라고 규정함을 근거로 '그가 서구 수용적 계몽 사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현우는 두 세편의 연구에서 박은식의 유교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학규신론』에 나타난 박은식의 경학관 연구」에서는 박은식이 정약용의 경학을 일정 수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학규신론(의 주요 논의로 인용된 구절은) (1)爲周南召南, (2)聖人多能,□(3)道齊以政刑, (4)學優則仕 仕優則學 들로 각각 (1) 천성에 따른 유아 교육의 필요성, (2) 서구의 다양한 학문의 수용, (3) 서구에 반대하는 위정척사파에 대한 강력한 통제, (4) 유교를 근저로 한 신학문의 수용 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 해석들은 정약용 경학과 연결되는데, 이는 '그가 젊었을 때 정약용의 후학들과 교류한 적이 있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21]

이 연구는 박은식이 '성리학자에서 바로 양명학자로 전환했다.'는 기존 학설을 '성리학자에서 다산학을 거쳐 양명학자로 전환했다.'고 보완하는 성과가 있다. 그는 당시 성리학을 '실천이 결여된 사변적이고 지리한 학문'이라 비판하고, 또 기존 양명학 역시 '양지가 너무 간이직절하므로 후세가들이 견강부회하여 그 이론이 사변화되었다.'고 비판한 점에서 볼 때, 그의 실천정신은 양명학보다는 다산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그의 철학에서 다산학의 비중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다.

동시에 김현우는 박은식의 사상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박은식의 사상 전환 속에 나타난 양명학의 성립배경과 전개 양상」에서 그는 '박은식의 양명학이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역동적 관계 하에 형성된 시대적 산물로, 이에 대한 언급없이 그의 양명학을 일본양명학이나 중국양명학 또는 대만신유가와 일치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2] 그는 이러한 근거로 박은식이 다산학을 일부 계승하였고 대만신유가 등에서 주장하는 맹자-양명의 도통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20) 노관범(2014). 183-184면 참조.
21) 김현우(2014a). 418면 참조.
22) 실제로 그가 지적한 논문은 이명한·김나윤의 「한국철학사에서 박은식 선생의 위상연구」(『양명학』36, 한국양명학회, 2013)이었다. 김현우(2014b). 159면 참조.

설명하고 있다.

김현우는 위 두 편의 논문에서 박은식과 한국 근대 유교 지식인들과 관련한 두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조선 성리학, 실학 그리고 개화이후 개혁적 유교지식인들간의 소통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유교를 구습이라는 전통에 가두지 않고 근현대에서도 그 존재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두 번째는 한국 유교와 중국 유교(또는 일본 유교)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이다. 박은식 등 근대기 한국의 개혁적 유학자들은 기자부터 시작하는 한국 유교 도통론을 정립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유교가 중국과는 다른 양상을 밝힌 것이다. 기존 연구들 중 일부는 비판없이 한국 유교를 중국 유교의 입장에서 해석해 왔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일부 연구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이난수는「인문정신으로서의 '얼'과 한국인의 신명문제」에서 정인보의 '얼'을 양명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정인보의 철학과 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위당(정인보)은 민족적인 각성을 통해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으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을 정립한다. 그의 '얼'개념은 바로 양명학을 토대로 한 역사관이다. 즉 위당의 '본밑 마음'에서 '얼'로의 이행은 그의 양명학적 사유가 민족정신으로 발현된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본밑 마음'을 토대로 주체의 '얼'이 성립되며, 주체의 '얼'은 민족의 '얼'로 나아간다.[23]

정인보에 관한 연구는 박은식과 마찬가지로 유교연구자들에게 근대시기 한국양명학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다. 또한 정인보의 양명학과 민족주의도 소장 유교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연구는 특히 일제 강점기 하의 유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더욱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는 더불어 전통의 주제를 근대로 확대시킨 연구들도 있다. 이영자는「개항기 전후 호서유학자의 학맥별 갈등양상과 그 성리학적 근거」에서 호서지방의 유학의 전통에 따른 제 유학파들의 근대관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유학자들간의 근대적 시각 차이를 호락논쟁에서 찾고 있다.

> 이들 학맥은 이이와 송시열의 성리학을 각자의 당론 혹은 입장에 따라 계승, 발전시켰고, 각 학맥의 성리학적 기반에 따라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각 학맥의 출처의 행동 이념은 호락논쟁 즉, 인물성동이론과 명덕주리주기론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24]

---

23) 이난수(2014). 109면 참조.
24) 이영자(2014). 84면 참조

호락논쟁이 당시에도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유림들의 근대적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위정척사론과 동도서기론에 대한 실천적 입장을 단순한 리기심성론과 같은 형이상학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지닌 성과도 적지 않다. 그 성과로 첫째는 호락논쟁을 단순히 조선성리학 이론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교는 내성외왕의 도를 추구한다. 호락논쟁이 비록 인간 내면의 심구라 하여도 역시 현실과 분리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호락논쟁을 철학적, 심리적 의미로만 한정시킨 면이 없지 않다. 때문에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관행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성과가 있다고 평할 수 있다. 둘째는 호서 유림들의 학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조선의 유림들은 일명 사색당파라 하는 그룹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퇴율退栗을 근거로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고,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 노론은 다시 호학과 낙학으로 나누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근대기에 호서 유림들은 다시 호학과 낙학 사이에서 분화를 지속한다. 이는 호서 지역의 양상을 유교를 통해 고찰한 것으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학의 차원에서 유교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유교 연구의 새로운 방안으로 지역학 관련 연구들을 기대하는 바이다.

5. 평가와 전망

2014년 근대 한국 유교 연구는 전통적 영역인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의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은식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였고, 장지연, 신채호 등의 연구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들의 사상을 중국, 일본의 사상가들과 연결시켜 근대 동아시아의 유교적 가치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 성리학의 연장선에서 근대 유교지식인들의 사고를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기심성론理氣心性論이나 호락논쟁, 심설논쟁 등에 대한 근대 유교지식인들의 경향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려는 성과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지역학의 일환으로 근대 시기 일정 지역의 유림들을 고찰한 연구도 나왔다. 앞으로 이러한 신경향은 이 연구 분야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 유교는 주류보다는 여전히 한국학이라는 지역학에 속해 있다. 때문에 한국 유교를 기존 근대성 관점과 비교하여 그 근대적 가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지만, 아직 이를 직접 다룬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는 근대 중국의 유교 연구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연구 수에서는 한국 관련 연구가 많으나 근대성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연구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전통의 단절 또는 연장과 근대의 시작인 이 시기의 특성상 전통과 근대를 모두 연구해야 하는 복합성은 연구 제한 요소가 되어, 이 시기 연구들이

한국 유교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때문에 한국연구재단 등 주요 기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

한편, ICT를 통한 각종 근대 자료의 공유는 이 분야 연구에 새로운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 근대 연구의 한계 중 하나가 선별된 자료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전자자료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의 미디어가온 등은 그 동안의 한계를 상당히 해소시켜왔다. 한국학 전 분야에서 ICT를 통한 자료 운용은 연구토대로써 중요하다. 특히 근대 관련 분야는 정보의 다양성과 복잡성, 광범위성 등으로 인해 핵심적 자료의 선별이 어려웠다. 때문에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지원으로 향후 다양한 ICT 시스템이 구축·운용되길 기대한다.